

# 엘리자베스 세인트 자끄 (Elizabeth Saint Jacques)와 데이비드 맥켄 (David McCann)의 영어 시조 연구

박진임

단독 / 평택대학교

## [국문초록]

한국 고유의 운문 양식인 시조는 해외에도 꾸준히 소개되어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영어로 시조를 쓰는 시인들이 출현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영어 시조 창작집도 간행되었다. 최근에는 영어 시조와 관련된 포럼이나 세미나 등이 미국의 대학과 문학 동호회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미의 영어 시조 시인 중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자베스 세인트 자끄와 데이비드 맥켄의 영어 시조를 고찰하여 영어 시조의 특징을 살피고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특히 세인트 자끄는 창작 시조집에서 고유의 작시법을 밝히고 있어 그의 작시법을 분석하고 창작의 실제와 비교 검토한다. 세인트 자끄의 영어 시조는 언어적 감수성의 면에 있어서나 시적 은유의 구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주에 보내는 말」에 나타난 시어의 선택과 이미지의 선명성은 그 점을 확인하게 한다. 맥켄은 시조 연구자이며 번역자이고 동시에 시인이기도 하다. 맥켄의 「길을 잃고」에 구현된 시상의 간결성과 언어의 음악성을 통해 영어 시조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세인트 자끄와 맥켄의 시조 텍스트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에 나타난 텍스트 해석의 한계와

결락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두 시인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인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맥켄과 세인트 자끄가 보여주는 시조 텍스트들이 영어 시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한다는 점을 밝힌다.

**주제어:** 영어 시조, 윌트, 전환, 엘리자베스 자끄, 데이비드 맥켄

## I. 서론

시조는 한국 고유의 서정시 양식이다. 그러나 시조는 국외에도 번역을 통해 소개되면서 한국 문화의 특징을 세계에 알리는 구실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시조가 영어나 프랑스어 등 외국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된 역사는 실로 장구한 편이다.<sup>1)</sup> 또한 시조는 20세기 초반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재미 교포, 정확히 명명하자면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창작되었다. 그리하여 디아스포라 주체인 그들에게 문화적, 심리적 지지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sup>2)</sup> 최근에는 영어로 시조를 창작하는 시인들이 등장하면서 영어 창작 시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조는 일본의 하이쿠(Haiku)와 종종 대비되곤 한다. 하이쿠는 17음절로 이루어진 일본의 전통적인 시 형식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에 소개되어 활발하게 창작되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이제 영어로 하이쿠를 쓰는 시인의 수는 매우 많다. 영어 시조가 북미에 등장한 것은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그러나 하이쿠의 대중적 인기와 대비해 볼 때 한국의 시조 또한 일본의 하이쿠처럼 문화적 충격을 서구 사회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미의 영어 시조 작품집으로는 모두 4권이 존재한다. 1995년 캐나다의 엘리자베스 세인트 자끄(Elizabeth St. Jacques)의 『빛의 나무 주위에서 (Around

*the Tree of Light*』, 1995년 김운송(Un-song Kim)의 『현대 시조』 (*Poems of Modern Sijo*), 2007년에 발간된 린다 수 박(Linda Sue Park)의 『지붕 위의 탭댄스』 (*Tap Dancing on the Roof*), 2008년 데이비드 맥켄(David McCann)이 출간한 『도심의 절간: 전환과 직설의 시조』 (*Urban Temple-Sijo, twisted and straight*)가 있다.<sup>3)</sup>

본고에서는 그 4명의 시인 중에서 자끄와 맥켄, 그리고 박의 영어 시조에 주목한다.<sup>4)</sup> 특히 자끄와 맥켄의 시조집에 수록된 시조 텍스트를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동시조를 쓴 박의 경우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제외한다. 세인트 자끄와 맥켄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영어 시조의 특징을 밝히고 그 미학적 성취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두 시인의 작시법을 분석하여 그들이 시조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한 바를 파악할 것이다. 영어 시조 시인들이 한국 시조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유의 창작 기준을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핀다. 그런 다음 그들의 창작 텍스트를 분석하여 미학적 특성을 살핀다. 영어 시조 창작의 이론과 실재를 살피는 것은 한국의 고유한 시형식이 지닌 특징들이 국제적 맥락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영어 시조의 출현은 일차적으로는 영시 미학의 영역을 확대하고 영시의 성격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한다. 그 점은 하이쿠의 특징적 요소들을 수입하면서 영미시의 이미지즘이 발전해 온 역사적 맥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영어로 창작된 시조를 살피는 것은 한국 문학 혹은 한국 문화의 특징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재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제공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영어 시조 창작 양상을 고찰한 연구로는 박미명의 「미주 발간 창작 영어 시조집에 나타난 시조의 형식과 그 의미」를 들 수 있다. 박미명은 『지붕 위의 탭댄스』를 제외한 3권의 시조 창작집에 수록된 시조 텍스트들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박미명을 통해 북미에서의 영어 시조 창작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박미명은 영어 시조 시인들이 시조의 특성을 이해한 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조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종장의 특성을 실제 창작에서는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71). 특히 엘리자베스 세인트 자끄의 시조에 대해서도 박미명은 종장의 특색을 살리는 데에는 이르지 못

하였다고 평가한다 (87).

본고에서는 박미영의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수긍하면서도 세인트 자끄와 맥켄 시조의 미학적 성취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영어 시조 창작자들이 시조 종장의 특성인 반전 혹은 전환(twist)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창작물에서도 그 점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미영이 영어 시조 창작자들의 존재 의미와 기여도를 전반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작품 평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과는 입장을 달리한다. 본고에서는 영어 시조 창작자들 중에서도 세인트 자끄와 맥켄은 시조의 내적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영어 창작의 실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텍스트를 통하여 시조에 대해 이해한 바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작시법과 창작 텍스트를 분석하며 그 점들을 살펴보자.

## II. 엘리자베스 세인트 자끄의 작시법과 창작 시조

먼저 세인트 자끄가 시조의 특징으로 이해한 바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세인트 자끄의 작시법과 아울러 검토해보자. 창작 시조집 『빛의 나무 주위에서』의 「서문」(Forward)에서 세인트 자끄는 시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시조는 45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3행의 시이다. 각 행은 14~15음절로 구성되는데 1행은 문제 의식이나 주제를 드러내고 2행은 그를 발전시키거나 생각의 전환을 보여준다. 3행은 처음의 문제 의식을 해결하거나 주제를 정리한다. 3행 혹은 종장의 전반부는 전환을 보여주는데 의미나 소리, 어조나 혹은 다른 장치 상에서의 놀라움을 통해 그 전환을 드러낸다. 성공적인 시조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유티나 심오한 발견이나, 강한 정서적 종결이 작품 내에 존재해야 한다 (12).<sup>5)</sup>

요약하자면, 세인트 자끄에 따르면 시조는 3행으로 이루어지고 각 행은 보통 14 혹은 15음절로 구성된다. 초장인 1행에서는 주제나 문제의식이 제시되고 중장, 즉 2행에서는 일종의 ‘전환’이 나타난다. 종장인 3행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주제가 마무리된다. 그리고 종장의 전반부는 ‘반전’을 보여주어 독자에게 놀라움을 선사해야 한다. 세인트 자끄는 시조 창작에 있어서 창작자가 지켜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즉 텍스트에 나타난 시인의 생각이 참신하거나 텍스트에 시인의 깊이 있는 관찰이 드러나거나 혹은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이 강한 감정적 고양으로 마무리될 때 그러한 영어 시조가 잘 된 시조라고 요약한다.

시조의 형식적 특징으로 세인트 자끄가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조 이해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는 않는다. 세인트 자끄가 강조하는 것은 15음절 내외로 한 행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들이 셋이 모여 한 편의 시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특히 종장의 첫 부분에서는 일종의 반전 혹은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또한 시조 초, 중장의 특징을 살핀 후 초장과 중장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두 장이 유사해 보이나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힌다. 음수수 등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볼 때에는 초장과 중장이 균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의 면에서 살펴보면 초, 중장은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점은 세인트 자끄가 시조의 핵심요소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인트 자끄의 견해는 종장을 설명할 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 종장에서 독창적인 위트로 종장을 마무리하거나 깊은 관찰력이나 강한 정서가 드러나게 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시조의 요체가 종장에 있음을 세인트 자끄가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sup>6)</sup>

전술한 바와 같이 박미영은 세인트 자끄가 시조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다. 위와 같은 시조 이해 방식이 “우리 시조를 1행 4음보, 3행 형식이라고 정의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한다(82). 그러나 시조의 형식적 특징이 박미영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시조 한 행이 4음보로 이루어지며 그런 행이 3개 모여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음보라는 명칭 자체가 시조의 성격과는 맞지 않

는 것이라는 점은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sup>7)</sup> 또한 초, 중, 종장의 불균등한 어휘 배치를 살펴보면 행의 구성에 있어서 4음보적 특징이 설득력 있게 시조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시조에 사용된 한국어의 음악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균질적인 음절수라는 요소밖에 없다고 본다.<sup>8)</sup> 15음절 내외로 한 행이 구성되며 그 행의 내부에서 음절들이 균등한 구조로 배분되는 것에서 시조의 운율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시조의 특징이 제한된 음절이 보장하는 언어의 음악성에 있다고 보는 그의 입장은 음절의 제한보다 4음보가 시조의 요건으로서 더 중요하다고 하는 박미영의 주장과 배치된다. 데이비드 맥켄의 연구서에 설명된 시조의 특징에도 시조 형식에서는 음절의 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있다.<sup>9)</sup> 지금까지 세인트 자끄의 작시법을 검토하였다. 이제 그의 창작 시조 텍스트를 살펴보자. 텍스트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작시법이 시조 창작에 직접 적용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주에 보내는 말」(Note to the Universe)을 살펴보자.

Eternal is the mystery  
Within your multitude of lights.

Into your soul our silver darts  
Seed noble hopes and dreams.

Fear not old friend we cannot stay  
Our roots are tied to trees. (19)

당신의 빛의 홍수 속에서  
신비는 영원하다.  
우리의 은빛 다투는 당신의 영혼 속으로 뛰어들어  
숭고한 꿈과 희망을 심는다.

두려워 말게. 친구여  
 우리 여기 머물 수 없음을.  
 우리 뿌리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네.<sup>10)</sup>

세인트 자끄는 자신의 작시법에 충실하게 창작하여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구현했다.<sup>11)</sup> 초장에서 신비와 영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중장에서는 그것을 전개하고 확장하여 꿈과 희망을 노래했다. 그다음 종장에 와서는 “Fear not old friend”하고 친구를 호명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호명은 반전(twist)을 위한 적절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고시조에서는 그런 호명이 “아희야, 어즈버”라는 상용구로 자주 등장하곤 했다. 이를 테면 그런 호명을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종장의 결론을 기대하고 준비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Fear not old friend”라는 전환의 구절은 그와 같이 종장을 알리던 신호 장치가 영어를 통해 현대적으로 변용되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Do not fear”가 아니라 “Fear not”이라고 표현하여 시조의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후자에서는 전자에 비하여 음절의 수가 하나 줄어 있다. 그리하여 음절 수에 있어서 전통적인 시조 종장 전반부의 형태에 근접해 있다. 시조 종장은 흔히 3,5,4,3의 음절수를 지닌 어휘들의 배치로 구성된다. 종장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장의 전반부에서 압축과 이완을 보여주는 음절의 배열이라 할 수 있다. 즉 종장의 전반부는 3음절과 5음절로 구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3음절 대신 2음절 어휘가 쓰이기도 했다. 또한 2~3음절을 뒤따르는 5음절 어휘는 5음절을 넘어 6,7음절, 심지어 8음절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도 허용되었다. 다시 말해 종장 전반부에서는 2 혹은 3음절로 구성된 짧은 전환의 언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세인트 자끄의 위 텍스트는 종장 도입부의 특징을 영어를 통해서도 상당히 복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we cannot stay”라는 후속 구절은 “Fear not old friend”에 비해서는 시조적 요소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절에서 음절의 수가 충분히 증가했다라면 시조의 특성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이다. 영어와 한국어의 근원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영어 시조가 어휘의 음절 수를 통하여 언어의 음악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인트 자끄는 그 한계 속에서 최대한 한국어 시조의 음악성에

근접하는 시어 사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지금에조차(Even Now)」를 위시한 세인트 자끄의 다른 텍스트들에서도 위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입, 전개, 반전의 구조가 확연히 드러난다. 자끄는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어를 통하여 미학적으로 재구성한 시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텍스트의 시어가 산문적, 설명적이지 않고 함축적이어서 한 편의 영시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언어 미학의 측면에서도 성취도가 높은 시적 텍스트를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 시의 장르적 특징이 함축적이며 상징성 높은 언어의 선택과 적절하고도 창의적인 은유의 구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텍스트들과 대조된다.<sup>12)</sup>

전술한 바와 같이 박미영은 영어 시조 창작자들이 “종장의 의미적, 율격적 특성을 전환(twist)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정작 창작모델로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다(71). 그러나 위에 든 텍스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인트 자끄 시조에서는 종장에서 시상의 전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세인트 자끄는 종장에서 의미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조 작시법의 덕목을 창작의 실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인트 자끄의 영어 시조는 앞으로의 영어 시조 창작의 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 III. 데이비드 맥켄의 작시법과 창작 시조

이제 데이비드 맥켄의 경우를 살펴보자. 데이비드 맥켄은 시조 시인이기 이전에 시조 번역가이며 연구자이다. 시조의 영어 번역에 있어서 리처드 러트(Richard Rutt)와 더불어 가장 모범적인 번역 텍스트를 구현한 번역가로 평가할 수 있다.<sup>13)</sup> 그의 시집에 수록된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맥켄이 시조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영어라는 외국어를 통하여서도 시조의 특징을 잘 구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맥켄은 영시로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영어 시조 텍스트를 보



여준다. 맥켄의 시조 텍스트를 살펴보면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영어로 시조를 쓸 때에도 3행 혹은 6행 배열을 통해 시조의 3장 구성 원리를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맥켄 또한 세인트 자끄와 마찬가지로 종장의 특징을 창작 시조에서 잘 구현하고 있다. 맥켄의 텍스트 또한 종장에서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편이다. 초, 중장에서는 시상의 도입과 발전을 보여주고 종장에 이르면 급격한 전환을 통하여 시상의 내면화를 시도한다는 시조의 특징이 그의 텍스트에 잘 구현되어 있다.

맥켄 시조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진희의 논문 「영어시조에 나타난 위트에 대하여」를 들 수 있다. 영시의 중요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위트의 개념을 통하여 영어 시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다. 시조 종장에서 드러나는 전환을 영시의 위트라는 요소와 연결하여 설명한 김진희의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국문학계에서는 시조 텍스트 내부에는 구조상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병존한다고 보는 시각이 확립되어 있다. 서경과 서정의 변증법적 결합으로 시조의 초, 중장과 종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14)</sup> 김진희의 위트 개념은 그와 같은 시조 내부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위트’ 개념이 맥켄 영어 시조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본 점과 아울러 김진희의 또 하나의 강점은 텍스트를 번역할 때 시조 형식의 번역을 함께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는 시조 형식에 맞게 어휘를 선택, 배치하여 시조 특유의 언어적 음악성을 번역에서도 구현하고자 했다. 그 점은 매우 고평해야 하는 덕목이다. 김진희는 3,4음 절로 구성된 어휘를 선택하여 3장 6구 형식으로 배행하면서 4울마디의 리듬감을 번역 과정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김진희의 맥켄 텍스트 분석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맥켄 텍스트의 새로운 번역을 시도한다. 번역을 달리함으로써 원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맥켄 영어 시조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후술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맥켄의 영어 시조 텍스트의 긍정적 요소에 주목한다. 맥켄의 영어 시조는 종장에서 전환의 요소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 영어 시조의 전범을 이룬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맥켄의 「길을 잃고」(Lost) 원 텍스

트와 김진희의 한국어 번역 텍스트를 살펴보자.

Warm oak woods  
too deep for us to penetrate,  
we linger instead  
in the graceful periphery  
while a dog chases hopelessly after  
wooden balls struck so well the mallets sing. (8)

포근한 참나무숲  
깊어도 너무 깊어  
우아한 주위에서  
우린 그저 땀을 도네  
나무공 때린 소리에  
강아지 쫓아 뿔 때<sup>15)</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김진희의 번역에서는 맥켄 텍스트의 핵심적인 요소가 소실되어 텍스트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음을 밝힌다. 그 결과로 원 텍스트 종장이 구현하는 전환의 요소도 함께 간과되거나 유실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김진희 번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한된 어휘 수의 규칙 내에서 시조 형식을 갖춘 번역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완성된 번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구절을 빠뜨리게 된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먼저 새로운 번역을 시도한다.

아늑한 참나무숲  
깊고도 깊어서  
그 숲에 들지 못한 채  
주변만 서성이네.

강아지 헛되이 뒤쫓는 사이  
 나무공이 딱 맞히자 노래하는 나무 망치 16)

졸역에서는 시조 형식의 번역보다도 내용에 충실한 번역을 시도하였다. 3음절과 4음절 어휘들을 주로 선택하여 균등 4 율마디가 느껴지도록 한다는 시조 형식을 유지한 상태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시조 번역에 있어서는 내용과 형식, 양면의 번역이 아울러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번역의 실제에서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충실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 혹은 후자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sup>17)</sup>

김진희 번역본과 졸역본의 차이는 종장에 있다. 종장의 말미에 등장하는 ‘나무 망치가 노래하다’라는 시상의 존재 유무에 있다. 그 밖의 모티프들은 어휘 선택에서의 미묘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초장에서는 참나무 숲이 ‘warm’하고 뚫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깊다고 하는 일종의 서경적 요소가 등장한다. ‘warm’어휘를 김진희 텍스트에서는 ‘포근한’이라고 번역했고 졸역에서는 ‘아늑한’이라고 번역했다. 유사한 번역에 해당할 것이다. 종장에서도 두 번역본은 뉘앙스에서 차이 나는 어휘들을 선택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 크게 이질적인 요소는 없다. 둘 다 ‘참나무 숲이 깊고도 그윽한데 그 깊은 숲은 외부인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아 시적 화자는 주변을 맴돈다’라는 시상을 동일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종장에 있어서는 두 번역본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다. 종장에 등장하는 모티프들은 ‘강아지’와 ‘나무 공’과 ‘나무 망치’이다. 김진희 번역본에서는 그 세 가지 주요 시적 구성 요소 중 나무 망치가 완전히 제외된 채 번역되었다. 그러나 그 나무 망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나무 공과 나무 망치가 짝을 이루어 등장하기 때문에 나무 망치의 존재를 삭제하면 나무 공이 등장한 이유를 알 길이 없어진다. 즉 나무 망치가 생략된다면 원 텍스트는 시로서 기능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종장의 ‘while’을 김진희 번역본에서는 ‘~때’로 번역했는데 졸역에서는 ‘~ 하는 동안에’ 혹은 ‘~하는 사이에’ 라고 이해한다. 즉 졸고에서는 ‘while a dog chases hopelessly after’는 시조 종장 전반부의 등가물이며 ‘wooden balls struck so well the

mallets sing'은 그 종장의 후반부에 해당한다고 파악한다. 'while a dog chases hopelessly after' 부분을 3,5음절로 주로 구성되는 종장의 전반부로, 'wooden balls struck so well the mallets sing'이 4,3음절로 구성되는 종장 후반부라고 파악한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원 텍스트인 영어 시조의 음절을 헤아려 본다면 '3,3' 그리고 '5,3'음절로 구성된 종장임을 알 수 있다.

종장의 음절 수는 달리 계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린다 수 박의 이론을 따르면 위 텍스트의 종장은 2,3 그리고 4,2 음절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sup>18)</sup> 즉, 강세가 있는 음절만을 가려 맥켄 시조 텍스트의 음절 수를 헤아린다면 종장은 모두 11음절로 구성된 종장이라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3,5,3 음절로 종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에는 'a'와 'so'같은 비강세 음절을 포함하여 세어 본 경우이다. 반면 후자는 그들을 제외하고 세게 되어 2,3,4,2의 11음절로 구성된 종장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3,5,4,3'으로 주로 드러나는, 시조의 전형적 음절 구성에서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4올마디의 리듬감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조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시상의 측면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종장에서의 나무 공과 나무 망치의 등장은 종장의 필수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략될 수 없는 것이다. 시조 형식에 맞추어 번역하기 위해 시상을 생략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니와 만약 어쩔 수 없이 생략해야 할 경우에도 나무 공과 나무 망치 중 하나를 생략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굳이 생략한다면 오히려 강아지가 공을 찾아 뛰어다닌다는 부분이 의미상 덜 중요하므로 간단히 줄여서 표현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런 강아지의 등장 또한 시상의 전환을 위하여 시인이 굳이 동원한 것이므로 번역에서도 그 점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 종장을 두고 볼 때, 김진희 번역 텍스트는 '나무 공이 무엇인가에 부딪쳐 소리를 내자 강아지가 그 공을 쫓아 뛰어간다'는 시상에 집중한다. 그러나 줄역에서는 나무 망치에 공이 정확하게 맞아서 음악 소리처럼 경쾌한 소리를 낸다는 시상에 더 주목한다. 나무 공이 너무나도 잘 부딪쳐주어 나무 망치가 노래를 한다는 은유적 표현에 이른다. 본 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무 공과 나무 망치는 스포츠 경기인 크로케(croquet)의 도구라고 보아야 한다. 크로케는 나무로 된 공과 망치, 그리고 네트를 이용하는 경기이다. 나무 망치로 공을 쳐서 공이 네트를 통과하게 되면 득점을 하는 경기이다. 그러므로 나무 공을 치는(strike) 것이 나무 망치이고 나무 공은 망치가 칠 때 소리를 내며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적 화자는 ‘나무 공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때려서 나무 망치가 노래를 한다’는 시상을 보여준다. 즉, 시인은 능동적인 주체인 나무 망치와 수동적인 객체인 나무 공의 역할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치거나 때리면 맞아서 울리는 것이 망치와 공의 관계이지만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서는 그 관계가 역전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김진희가 주장한 바, ‘위트’가 적절히 활용된 시조 종장 구성이라는 요건을 맥켄은 성공적으로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무 공이 쳐서 나무 망치가 운다고 하거나 울린다’고 하지 않고 ‘노래한다’고 표현하여 시적인 효과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3장이라는 짧은 형식 속에서 시적 화자가 ‘노래하는 나무 망치’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숲의 고요를 깨뜨리는 사물의 움직임을 보여주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비교를 의도했을 수도 있다. 혹은 정적을 무너뜨리는 소리의 존재를 통해 생명력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불명료성은 시적 애매성으로 남아 해석의 공간을 남겨두게 된다.

확연한 것은 맥켄은 깊은 참나무 숲을 묘사하고 그 숲에 들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도는 시적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서경적으로 첫 2장에서 표현하였다. 그런 다음 종장에 이르면 강아지와 크로케 경기의 모티프를 도입하여 시상의 전환을 보였다. 크로케 경기는 숲 주변에서 시적 화자가 우연히 목도하게 된 것이겠지만 그 사실의 여부는 텍스트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상상한 경기일 수도 있고 시적 화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경기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인이 그러한 전환의 분위기 속에서 나무 공과 나무 망치의 존재 의미나 역할을 전도시키는 고유한 시각과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평이한 서술에 불과하던 텍스트가 종장의 말미에 이르러 나무 망치와 나무 공으로 인하여 흥미롭게 변한다. 종장에 도입된 새롭고 이질적인 그 요소들이야말로 맥켄 시조가 시적 긴장과 함축을 지니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무 공과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나무 망치와 그 나무 망치가 노래한다는 점은 원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 나무 망치를 삭제한 채 나무 공만 남기고, 그 공을 찾아서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으로 번역했을 때 원 텍스트의 의미가 적절히 전달되기는 어렵다.<sup>19)</sup>

결론적으로 「길을 잃고」(Lost)는 서경과 서정의 결합이라는 시조의 구성 원리를 잘 파악하고 성실하게 실현한 텍스트이며 종장에서 전환과 위트를 구현하고 있는 성공적인 영어 시조라고 볼 수 있다. 맥켄이 창작 초기에 쓴 영어 시조와 비교하면 매우 발전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시조를 연구하고 창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맥켄은 종장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초기 시조를 통해 그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맥켄은 자신의 첫 시조라고 밝히며 「첫 시조: 안동의 어느날 밤」(First Sijo: A Night in Andong)을 발표했는데 영어와 한글판을 동시에 자신의 시조집 『도심의 절간: 전환과 직설의 시조』에 수록하고 있다.

하룻밤 안동시내 골목술집 구경하고  
머리가 뱅뱅돌 때 밭둑길을 거닐다가  
도야지 꿀꿀소리아 이제왔노 하노라

One night in Andong  
after a tour of back-alley wine shops,  
head spinning, I staggered down  
the narrow, paddy-field paths,  
when the teo pigs grunted grunted  
“So you! Home at last?” (16)

맥켄이 안동 체재 시절에 쓴 위의 시조는 미학적인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텍스트이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단계에서 시조 형식에 매력을 느껴 시도해본 습작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라고 불려도 무방할 성격의 텍스트로 보인다. 그러나 맥켄

이 시조 종장이 지니는 고유한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장에서 시적 화자를 맞아 주는 돼지 울음 소리를 등장시키면서 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선명하다. 제한된 한국어 어휘 구사력을 지닌 시기에도 3음절, 4음절, 5음절 어휘들을 찾아내고 시조의 형식에 정확하게 맞추어 배열해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켄이 시조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고 외부인의 시선에서 한국 고유의 시조를 이해한 방식은 그의 저술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그가 영어로 창작한 시조 텍스트들은 그 연구 결과물들과 짝을 이루며 시조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재확인하게 한다.

#### IV. 결론

이상에서 세인트 자끄와 맥켄의 영어 시조 작시법과 창작 시조 텍스트를 살펴 보았다. 작시법을 통해 그들이 시조의 속성을 이해한 방식을 파악했고 창작 시조에서 작시법의 실제적 구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양자는 모두 시조의 핵심을 사상이나 정서의 반전에서 찾고 있으며 시조 형식에서는 종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의 텍스트를 통하여 시조의 형식이 3행, 5행 혹은 6행으로 다양하게 표기될 수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 각 행, 즉 초, 중, 종장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든 간에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행의 배열 방식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음절 수 규정의 문제이다.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가 판이하므로 음절 수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창작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영어 시조 창작의 선결 과제이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만큼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린다 수 박이 작시법에서 소개한 ‘강세 음절’의 개념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인트 자끄와 맥켄의 창작 텍스트는 박의 강세 음절 개념에 따라 음절 수를 살필 경우 대부분 한 행에서 15음절, 그리고 텍스트 전체에서는 총 45음절 내외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조는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과 한국어 고유의 언어 미학적 특성을 살린 운문 형식이다. 초, 중, 종장의 구성 원리 또한 발단, 전개, 전환과 종결이라는 3단계의 사유와 심상의 전개과정에 잘 부합한다. 그런 시조가 영어를 통하여 창작될 때에는 한국어로 창작된 시조와는 일정한 차이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세인트 자끄와 맥켄은 영어 시조 창작시 활용해야 할 필수적 조건으로 형식적 간결성과 종장에 구현된 전환의 요소라는 두 가지를 선택했다. 전자인 간결성을 위해 텍스트의 음절이 45자를 크게 넘지 않도록 하였고 후자인 전환의 요소는 위트등을 활용하면서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어 시조는 다른 창작자들이 모델로 삼을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미에서 영어 시조 창작이 더 활발해짐에 따라 그들의 선구적 역할의 의미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 Notes

- 1) 박미영은 미주에서는 한인 이민자들이 《신한민보》에 시조를 발표한 것이 미주 시조 창작의 효시에 해당한다고 본다. 박미영, pp. 72-73. 《신한민보》는 1909년 2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단체인 국민회(國民會)의 기관지로 창간된 신문이다. 그러므로 미주 시조 창작의 역사는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호길 시인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미주 시조 시인협회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문금숙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와 그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김동찬 시인이 중심이 된 글마루 회원들 중에도 시조 시인이 상당수 존재한다.
- 3) 박미영의 논문에는 김운송의 시집 제목을 *Modern Sijo*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류로 보여 바로 잡는다. 김진희의 논문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 1995년에 캐나다 시인인 엘리자벳 자끄는 *Around the Tree of Light: A Collection of Korean Sijo*를, 김운송은 *Modern Sijo*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2008년 데이비드 맥켄이 *Urban Temple: Sijo, twisted and straight*를 발간하여 on-line 상에서의 영어 시조와 병행하여 off-line 상의 영어 시조를 부흥시키고 있다" 박미영, p.78.
- 4) 엘리자베스 세인트 자끄는 1939년생으로서 시조 외에 하이쿠도 영어로 창작하여 시집을 발간한 바가 있다. 현재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다. 데이비드 맥켄은 1944년생이다.
- 5) "The Sijo is a 3-line poem consisting of 45 syllables. Each line has 14 to 15 syllables, line 1 presents a problem or theme, line 2 develops or 'turns' the thought, and line 3 resolves the problem or concludes the theme. The first half of the final line employs a 'twist' by means of a surprise in meaning, sound, tone or other device. To end with



originality of wit, a profound observation or a strong emotional finale is a must for a successful sijo.” *Around the Tree of Light*, p.12.

- 6) 위와 같은 자끄의 작시법은 상당 부분 린다 박의 작시법과도 일치한다.
- 7) 가장 대표적으로 시조 율격의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는 조창환의 ‘올마디’ 개념을 들 수 있다. 조창환은 음보 개념 자체가 한국어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영어 처럼 강세를 지닌 시양식에서나 활용 가능한 것이 음보 개념이라고 본다. 그리고 음보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조의 리듬감을 올마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한다. 조창환의 주장은 국문학계의 김대행, 성기옥 등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바탕 위에서 제기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조창환을 참고할 것.
- 8) 음보 개념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창환을 참고할 것
- 9) 자세한 것은 McCann, David:1988을 볼 것.
- 10) 논자의 줄역.
- 11) 박미영은 위 시가 s음가를 반복 사용하여 각운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논자는 그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각 행의 말미에 자주 보이는 s는 단순히 복수 명사를 사용해서 그러한 것이고 그것을 각운으로 보기는 어렵다.
- 12) 김운송의 시조 텍스트와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13) 리차드 러트는 번역에 있어서 세미콜론(:)을 활용하여 동일 시행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상과 시어의 균질적 배치를 재현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러트 번역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박진임을 참고할 것.
- 14) 이에 대해서는 조창환을 참고.
- 15) 김진희, pp.137-38. 김진희는 번역과 함께 텍스트 분석도 시도한다. 숲의 이미지에서 생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나무 공과 개의 모습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통찰의 시도를 찾는다. “얕은 것에서는 초, 중장과 종장 사이에 몇 가지 대조적인 심상이 그려진다. 초, 중장의 어렴풋한 시각적 심상에 대비되는 종장의 또렷한 청각적 심상, 초, 중장에 표현된 인생의 비밀에 대조되는, 종장에 그려진 강아지의 즉각적 반응 등이 그러하다. ‘너무나 깊은 참나무 숲’은 아늑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친숙하면서도 낯선, 생의 비밀에 대한 상징 같다.
- 16) 논자의 줄역.
- 17) 이에 대해서는 박진임:2019를 참고.
- 18) 린다 수 박은 영어 시조의 음절 수를 헤아릴 때에는 강세가 포함되지 않은 음절을 제외하고 강세가 있는 음절들만을 헤아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박진임:2018, pp.32-5를 볼 것.

- 19) 김진희는 자신의 번역본을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다. “그 근처에서 안타깝게 서성이는 우리들의 서툰 몸짓이 초, 중장에서는 그려진다. 이 고요를 종장에서 깨는 것은 누군가 던진 나무공 소리에 사방팔방 쫓아 뛰어가는 개다. 이러한 대조는 의외인데,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통찰을 드러내는 것 같다. 나무공 소리에 놀라 뛰는 것은 개뿐일까? 우리 삶에서 활기차게 반짝이던 모든 순간들이 다 이와 같지 않은가? 부질없는 좇음과 길잃음, 이러한 것들로 얽혀 있는 존재의 방식에 대한 통찰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다.” 김진희, p.138.

## 인용문헌

- 김진희. 「영어시조에 나타난 위트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42집, 2015, pp. 117-50.
- 박미영. 「미주 발간 창작영어시조집에 나타난 시조의 형식과 그 의미: Around the Trees of Light, Modern Sijo, Urban Temple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34집, 2011, pp. 71-110.
- 박진임. 『두겹의 언어』. 고요아침, 2018.
- \_\_\_\_\_. 『비교문학과 텍스트의 국적』. 소명출판, 2019.
- \_\_\_\_\_.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번역의 문제: 시조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8권1호, 2007, pp. 151-73.
- 유영남. 『번역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1995.
- 이태신. 『체육학 대사전』. 민중서관, 2000.
- 조창환. 『한국현대시의 운율론적 연구』. 일지사, 1986.
- Jacques, Elizabeth. *Around The Tree of Light: A Collection of Korean Sijo*. Maplebud Press, 1995.
- Kim, Un-Song. *Poems of Modern Sijo*. One Mind Press, 1995.
- McCann, David. *Form and Freedom in Korean Poetry*. Brill, 1988.
- \_\_\_\_\_. *Urban Temple: Sijo, Twisted & Straight*. Bo\_leaf Books, 2008.
- Park, Linda Sue. *Tap dancing on the Roof*. Clarion Books, 2007.
- Rutt, Richard, editor. *The Bamboo Grove: An Introduction to Sijo*. U of Michigan P, 1988.

## Abstract

### **A Study of Sijo Prosody and English Sijo in North America: Focusing on Elizabeth Saint Jacques and David McCann**

Jinim Park  
Pyeongtaek University

Sijo is a uniquely Korean poetic genre, which is often understood and explained vis-a-vis Japanese Haiku. As much as Haiku became popular in North America, Sijo has started to gain recognition since 1990s.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aesthetic values of Sijo written in English, focusing on two North American poets: Elizabeth Saint Jacques and David McCann.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prosody of Saint Jacques because it explains how the poet understood the nature of Sijo.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two poets' Sijo text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poetic closure of their texts. As is known, the closure in the final line of Sijo is often the most critical element in the text. By employing such elements as wit, twist, and strong emotional expression, the closure reaches textual fruition and determines its degree of success. Saint Jacques and McCann provide exemplary Sijo texts in English,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elegance of poetic closure.

**Key Words:** English Sijo, wit, twist, Elizabeth Saint Jacques, David McCann

논문접수일: 2020.09.14

심사완료일: 2020.10.12

게재 확정일: 2020.10.26

이름: 박진임

소속: 평택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주소: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 평택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이메일: micalber@gmail.com

